

보육실습일지		결재	실습생	지도교사	원장
			한경빈 (인)	이미옥 (인)	김미현 (인)
반명	별누리반	일시	2025년 05월 08일 목요일		
날씨	맑음	결석 영유아	박소하		
주제	나는 가족이 있어요	소주제	엄마 아빠가 좋아요		
시간 및 일과	활동계획 및 내용		평가 및 유의점		
7:30~8:30 등원 및 오전 통합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선생님께 바르게 인사한다. - 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관찰한다. - 가방에서 수건과 물통을 꺼내 정리하도록 한다. - 가방과 외투를 자신의 사물함에 정리하도록 한다. 		유아가 스스로 외투를 벗고 가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투는 혼자서 벗기 힘들어 했지만 가방은 제자리에 잘 정리하였다.		
8:30~9:50 자유선택활동 및 정리정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탐색 후 각 영역에 가서 자유롭게 놀이한다. - 영아의 흥미에 맞춰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한다. - 놀이를 한 것은 스스로 정리한다. 		영아들은 교사가 책을 읽어주는 것에 흥미를 많이 느꼈고 동화책의 그림과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동화책을 더 재미있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50~10:10 손씻기 및 오전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에 다녀온 후 깨끗이 손을 씻는다. - 자신의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는다. - 간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 - 간식을 다 먹은 후 식판을 정리한다. 		간식을 잘 먹는 영아에게는 양을 많이 주었고 잘 먹지 않는 영아에게는 양을 적게 배분하여 제공하였다.		
10:10~10:50 아침인사 / 동화구연 / 집 그림 끼적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노래를 밝게 부른다. - 이름표를 보며 오늘 등원한 영아들을 파악한다. - 오늘의 날씨와 날씨를 알아본다. 		영아가 직접 이름표를 보며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질문하고 올바르게 이름을 말하였을 때 교사는 기쁘게 격려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구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되어줄게' 동화책을 집중해서 들어본다. - 바른 자세로 앉아 동화책을 감상한다. -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동화책을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집으로 귀가하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그림 끼적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집 모양 위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본다. - 영아가 가장 마음에 드는 집 위에 스티커를 붙여본다. 		영아와 색연필의 어떤 색으로 그림을 끼적이는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상호작용한다. 어떤 집이 마음에 들어하는지 물어보고 스티커를 제공하였다.		
10:50~11:30 산책 / 바깥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옆 친구 또는 교사의 손을 꼭 잡고 이동한다. - 산책을 하며 주변에 핀 꽃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어 본다. - 내리막길에서는 뛰어 내려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봄 소풍을 위해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을 예행연습해보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깥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 틀로 모래를 찍어본다. - 바깥놀이 후 화장실 다녀오고 물을 마신다. - 바깥놀이 후 손을 꼼꼼히 닦는다. 		다양한 모양 틀을 제공해주고 모양에 따라 모래가 찍어나오는 모습을 관찰해보았다. 모양틀을 찍어보기 전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 예측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시간 및 일과	활동계획 및 내용	평가 및 유의점
11:30~11:50 영어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알파벳과 알파벳에 맞는 동물 이름을 알아본다. - 영어 동요에 맞춰 노래를 불러본다. - 코끼리의 사진을 "BIG" 상자에 넣어본다. 	상자에 사진을 넣는 활동을 할 때 영아들이 흥미를 많이 보여 많은 양의 사진을 준비해야한다.
12:00~12:20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몸을 사용하여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여본다. - 오고디스크를 가지고 굴러본다. - 친구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한다. - 오고볼을 오고디스크 위에 올려 튀겨본다. 	노래에 맞춰 은몸을 움직일 때, 점프(비이동동작)/엎드리기(비이동동작)를 사용하였고 오고디스크와 오고볼을 사용해 조작적 동작인 튀기기, 굴리기를 사용하였다.
12:20~13:00 점심시간 / 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 - 화상실에 다녀온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도시락을 꺼내고 점심먹을 준비를 한다. - 밥을 먼저 다먹은 영아는 동화책을 본다. 	영아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교사에게 먹여달라고 해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치 - 올바르게 양치질을 해본다. - 차례를 지켜 양치질을 하도록 지도한다. 	입안을 행구기 전 교사가 영아의 입안을 다시 한번 닦아준다.
13:00~14:20 낮잠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잠을 자기 전 화상실에 다녀온다. - 자기 이부자리에 눕는다. - 모든 커튼을 내린다. - 잠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잔잔한 음악을 튼다. - 영아의 몸을 토닥여 주고 이불을 잘 덮어준다. 	아직 잠들지 못한 영아가 잠든 영아를 건들려 깨우지 못하게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14:20~15:00 오후간식 및 하원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간식 - 바르게 앉아 간식을 먹는다. - 오렌지주스가 흘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간식인 오렌지주스가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주스의 옆구리 부분을 뜯어 손잡이를 만들어 주고 빨대를 꽂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준비 - 개인 수건과 물병을 가방에 챙긴다. *영아의 상태를 점검하고 단장하게 한다. 	반의 한 영아의 바지 밑단이 찢어 하원 하기 전 여벌 옷으로 갈아입힌 후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15:00~17:30 통합보육 및 순차적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에 흥미에 맞는 놀이를 한다. - 오전 활동과 연계하여 각 영역에서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한다. - 놀이 후 순차적으로 하원한다. * 외투와 가방을 챙기도록 도움을 준다. 	영아가 흥미롭게 거미 그림을 그리고 있어 거미가 나오는 그림책을 지원해주었고 그림책 안에 숨어있는 거미를 찾아보는 놀이로 확장해 보았다.

시간 및 일과	활동계획 및 내용	평가 및 유의점
실습생 평가	<p>영아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게 되면서 첫날보다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각 영아의 성격과 발달 특성을 관찰하며,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아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놀이와 일상 활동 속에서 영아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활동 시간에는 옆 반인 별사랑반과 통합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직 별사랑반 영아들의 이름을 모두 숙지하지 못해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름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류가 제한된다는 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별사랑반 영아들의 이름도 적극적으로 익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통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양한 영아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작용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앞으로는 모든 영아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다가가려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p>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	<p>둘째날 실습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별누리반 친구들의 이름을 금새 익히고 이름 불러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이름을 불러주고 소통해주고 함께 놀아주시면 금새 마음을 열고 다가가 친근하게 따르답니다, 선생님의 예쁜 미소와 다정한 말투가 우리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오늘 하루도 친절히 다정히 대해주시고 여러 친구들과 놀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교사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말하기 어려워 하고 주변을 맴돌며 선생님께 관심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와 놀아달라고 하는 친구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아직 표현 하기 서툰 친구들도 돌아봐 주시고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p>점심시간에 아직 아이들이 혼자 먹는 것이 많이 서툴지만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먹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먹으려니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먹여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흘리더라도 스스로 먹을수있도록 해주고 마무리할대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조금 먹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p> <p>우리 별누리반 일과 세심히 살펴봐주시고 도움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p>	